

시티넷 서울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Brenna Foster 대외협력부담당

시티넷

편집부 번역

불과 30~40년 전인 1970년대에 메가 시티 규모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뉴욕과 동경 단 두 도시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불과 50년 만에 메가시티는 23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위치한다¹.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메가시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유엔(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약 60%의 인구가 도심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².

도심지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도시의 지도자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재난 대비 등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새롭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다른 도시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도시들이 빠르게 터득해가고 있다.

시티넷(CITYNET)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시정부 및 도시관계자 네트워크로서 도시와 도시 간 네트워크의 중요한 열쇠이다. 회원들은 시티넷이 보유한 도시, 기업 파트너, 다자기구 및 학술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개발문제에 대한 우수사례와 검증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즉, 개발 진행 중인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인 셈이다.

In 1970, just 43 years ago, the world held only two mega-cities, Tokyo and New York. Less than fifty years later in 2013, there are 23 mega-cities and over half of them are in Asia. These mega-cities, urban areas with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growing, and the United Nations predicts that 60% of the global population will live in an urban center by 2030.

As urban centers grow, city leaders must rise to the challenges of increasing populations, from building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to increasing disaster preparedness. Cities are finding that their most important tool in responding to these new demands is to learn from their fellow urban centers.

As the largest network of cities and urban stakehold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CITYNET is the key to city-to-city networking. Members are accessing CITYNET resources from municipalities, corporate partners,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to identify best practices and proven solutions for their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CITYNET is helping the cities of the future learn from the developments of the past.

1 http://esa.un.org/unup/pdf/WUP2011_Highlights.pdf Page 7

2 http://www.preventionweb.net/files/646_10363.pdf Page 4

시티넷(CITYNET)이란?

시티넷은 아시아태평양의 131개 시정부와 도시관계자로 구성되며 공통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결성된 조직이다. 시티넷 회원은 메가시티 규모의 시정부부터 크고 작은 비정부조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집단적 지혜와 경험을 보유한 강건하고 역동적인 커뮤니티이다. 이 자원은 크게 4가지 클러스터 즉, 기후변화, 재난재해, 인프라,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구분할 수 있다.

시티넷은 1987년에 유엔과 아시아태평양지역 27개 도시의 지지 아래 설립되었다. 1992년에 일본 요코하마시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2012년까지 요코하마 시정부의 아낌없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 아래 발전해 왔고 2013년 초에 서울시로 사무국을 이전했다.

시티넷 사무국의 이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벤자민 바버 교수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400년간 전 세계를 이끈 ‘국민국가(nation-state)’ 체제는 성공적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으며 다음 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이 성공하려면 도시와 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글로벌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티넷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도시 간 협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기회 마련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림1 박원순 시장이 2013년 시티넷 서울총회에서 “서울시는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 확인하고 있다.



What is CITYNET?

CITYNET is a network of 131 urban stakehold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dedicated to finding solutions to common urban challenges. With members ranging from mega-cities to smal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ITYNET network is a robust and vibrant community with stores of collective wisdom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resources can be categorized in four cluster areas, climate change, disaster risk reduction, infrastructure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ITYNET was founded in 1987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and 27 member citie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Yokohama City, Japan, graciously hosted the CITYNET Secretariat from 1992-2012, provid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early 2013, the Secretariat relocated to Seoul, Republic of Korea.

In celebration of CITYNET's relocation, esteemed Professor Benjamin Barber stated, “We are entering a new period of history. After 400 years of nation states trying to govern the world unsuccessfully, our new century and our new millennium will be a century of cities.” Building on the global consensus that cities and urban centers are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sustainable development, CITYNET is finding new ways to foster city-to-city collaboration, greater partnerships and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그림2 2013년 제7회 시티넷 본회의장 전경



2013년 시티넷 서울 총회

2013년 11월 시티넷 사무국과 서울시는 시티넷의 가장 큰 도시 간 교류 행사인 ‘2013년 시티넷 서울총회’를 주최했다. 본 행사는 11월 4일~7일(4일)간 진행되었으며 ‘인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이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시장, 선출 공무원(부시장, 의원 등)³, 다자기관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이 자리에서 정책결정자들과 지도자들은 각자의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아시아 태평양 도시들이 당면한 다음 세기의 도시개발 과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2013년 시티넷 서울총회는 도시솔루션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 시티넷의 역할을 대변하는 매우 우수한 사례였다. 또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숫자로 보는 2013 시티넷 서울 총회

세션(회의) 수 : 17명
 발표자 : 53명
 총 참석자 : 289명
 회원 도시 및 기관 : 62개
 파트너 조직 : 17개
 대표된 국가 : 24개
 대표된 대륙 : 6개
 양해각서(MOU) 체결 : 2개

그림3 김경철 부사무국장이 제30회 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3 여기서 선출 공무원은 시장 외에 부시장, 국회의원

4 CITYNET의 정회원과 준회원만이 참석가능하며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4년마다 소집되며 주요 인사를 선출하고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승인한다.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In November the CITYNET Secretaria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ld one of CITYNET's largest city-to-city networking events,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Over three hundred mayors, elected official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theme Innovative Solutions for People-Friendly Cities. These policy makers and leaders shared their urban development successes, exchanged knowledge, and identified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for their Asia Pacific cities.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was a prime example of CITYNET's role as a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urban solutions and ideas among urban stakeholders. By bringing together over 300 experts and practitioners, the Congress provided an unparalleled opportunity to create new connections and networks.

그림4 2013년 제7회 시티넷 본회의(7th General Council)⁴에서 회원 대표들의 모습



그림5 이근태 대사가 서울시의 시티넷 회원 대표로서 말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해법 공유

2013년 시티넷 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토론과 선거를 통해 미래의 우선순위와 관련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일련의 입법 회의(legislative meetings)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회원 및 도시기관 대표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2014년에 시티넷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30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주된 논의 주제는 서울에서의 기회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진태 대사는 서울의 의지를 강조하며 교통, 열린 정부 등을 서울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시티넷의 부사무국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현 김경철 서울교통연구원장은 본 기관 또한 교통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장 도시로서 서울의 기회

제 7회 시티넷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시티넷의 새 회장 도시로 선출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무국이 서울에 있는 바, 서울시 또한 인간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공동비전을 이행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단언했다.

서울은 회장 도시로서 다른 아시아 태평양 도시에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이끌 것이고, 한국의 기관들에게는 한국의 경험과 혁신과정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공유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본회의와 집행위원회가 끝나고 남은 3일 동안 참여자들은 소규모의 기술회의(technical session)로 나누어 시티넷의 4가지 클러스터 주제⁵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고체폐기물관리, 클린에어 액션플랜(clean air action plan), 교통 효율성, 재난 대응력과 관련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형태의 논의들은 매우 유익하였으며, 가시적이며 실현가능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새 천년개발목표(MDGs) 회의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는 새천년개발목표 아젠

5 기후변화, 재난재해, 인프라, 새천년개발목표(MDGs)

Sharing Solutions for an Urban Future: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was an opportunity for CITYNET members to determine future priorities and projects through discussion and elections. These decisions took place at a series of legislative meetings, where representatives from member cities and organizations fiercely debated CITYNET’s direction in 2014.

At the 30th Executive Committee meeting on November 3rd, much of the discussion centered around

표1 시티넷 주요인사 선출결과

직책	해당 도시(이름)
사무국장	비제이 자가나탄 (Mr. Vijay Jagannathan)
회장	서울특별시 시장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제1부회장	방콕광역행정 주지사, 태국 (Governor of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Thailand)
제2부회장	마카티시 시장, 필리핀 (Mayor of Makat City Government, Philippines)
집행위원회	요코하마시, 일본 (City of Yokohama, Japan)
	수라바야시, 인도네시아 (Surabaya City Government, Indonesia)
	부산광역시, 한국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콜롬보 시의회, 스리랑카 (Colombo Municipal Council, Sri Lanka)
	다카시 공사, 방글라데시 (Dhaka North City Corporation, Bangladesh)
	대(大)리온 도시커뮤니티, 프랑스 (Urban Community of Greater Lyon, France)
	인천광역시, 한국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주거권리 아시아연합, 태국 (Asian Coalition of Housing Rights, Thailand)
	네팔 도시협의회, 네팔 (Municipal Association of Nepal, Nepal)
감사	나가시, 필리핀 (City of Naga, Philippines)

다 이후의 미래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시 간에 지식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이행과정을 따르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다.

도시이해관계자 포럼(Urban Stakeholders' Forum)과 시장포럼(Mayor's Forum)은 11월 5일(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티넷 네트워크는 협회, 시민단체, 다자간 협력기구, 연구소 등 광범위한 비정부조직과 도시 관련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이해관계자포럼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였으며 폭넓은 분야의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티넷 회원과 파트너들은 도시개발 과제를 푸는데 있어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함께 인지하였다.

파키스탄 환경개발실행연구소인 PIEDAR(Pakistan Institute for Environment Development Action Research)는 성별이 구분된 고체 폐기물 관리시설(gender-aware solid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⁶ 구축과 관련한 사업진행사항을 공유하였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비정부 자문 조직인 MaRGG(Management Resources for Good Governance)는 도시빈민이 당면한 과제를 설명하고 주거 자원이 사회적 지위상승(upward 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각 발표 후에 전문가 패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 전문가와 혁신가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한국의 파트너들과 마이크로소프트, UNDP, UNESCAP, WBCSD 등 여러 국제기구 및 대국적 기업 파트너들도 자리를 함께 하며 의견을 공유하였다.

시장 포럼(Mayors Forum)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의장 직행을 맡았고 여러 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각 도시의 우수사례와 당면과제 그리고 관련 사업을 공유하였다. 이 중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시(Seberang Perai) 시장인 마이

그림6 새롭게 선임된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이 도시이해관계자포럼에서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그림7 시장포럼에서 박원순 시장이 전 시티넷 사무국장이자 현 특별자문위원인 메리 오르테가(Mary Jane Ortega)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new opportunities in Seoul. Ambassador Gun Tae Lee emphasized Seoul's commitment to CITYNET and presented best practices that Seoul could share, including transportation, open governance and water management. President Gyeng Chul Kim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who has long served as a Deputy Secretary General of CITYNET, also remarked on his organization's commitment to building urban sustainability in transportation.

Over the remaining three days of the Congress, participants met in small technical sessions focused around the primary clusters of CITYNET, with in-depth

⁶ gender-aware solid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구축사업을 의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공공공간은 물론 민간공간에서도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있는 공립학교에 시티넷과 지방정부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짓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이 마련된 것만으로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문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여사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기물관리 솔루션을 소개해 주었다. 총 20여 개 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이 포럼에 참석했으며 향후 고위 정부인사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총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기증자와 파트너 매칭행사(Donor and Partner Matching Session)가 진행되었다. 시티넷이 많은 심혈을 기울인 이 네트워크 이벤트에서 파트너 대표들은 출판물을 배포하고 참여자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협력의 기회가 마련했다. WBCSD, 마이크로소프트, 유엔 기관, 서울연구원 등이 파트너 대표로 참여했고 회원들은 파트너 대표에게 둘러싸여 적극적으로 각 도시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

본 총회는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 이는 이번 총회의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로 시티넷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래의 협력과 파트너십 기회를 확장할 것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티넷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주요한 해외개발지원기관인 KOICA의 프로그램과 시티넷 회원도시의 수요를 매칭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시티넥스트와 MOU를 체결하여 전 네트워크에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협약했다. 그리고 이 협약의 첫번째 이니셔티브로 시티넷과 마이크로소프트 시티넥스트는 '시티앵 카트만두 2014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자, 공무원, 시민 모두가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총회의 셋째날인 11월 6일(수)에는 록펠러 재단 대표 마이클 버코워츠(Michael Berkowitz)가 록펠러가 선정한 '100가지 도시대응력 향상 과제(Rockefeller 100 Resilient

그림8 기부자와 파트너 매칭행사 전경(상), 장영민 시티넷 대외협력 부장과 서울연구원 대표단 단체사진(하)



discussion of issues related to each topic area, including conversations on solid waste management, clean air action plans, transportation efficiency and disaster resilience.

These discussions proved incredibly fruitful and resulted in tangible, actionable outcomes. For example, i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ession, presentation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spurred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futur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agenda. From this meeting arose a proposal for a knowledge sharing platform between cities to track MDG progress.

The Urban Stakeholders' and Mayors' Forums were highlights of Tuesday, November 5th. The CITYNET network includes a wide rang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urban stakeholders, including associations, advocacy groups, multi-lateral partners and research institutions. At the Urban Stakeholders' Forum, these diverse voices came together to share their views. With discussions on a wide variety of issue areas,

그림9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티넷 회장으로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장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그림10 시티넷과 마이크로소프트 시티넥스트의 '시티앱 카트만두 2014 프로그램'



그림11 록펠러 재단의 마이클 버코워츠는 '100개 도시대응력 향상 과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Cities Challenge)⁷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다면적인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몇몇 도시를 선정하여 최고대응력담당자(Chief Resilience Officer)를 지원하고 최상위의 수준에서 도시대응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도모한다. 버코워츠씨는 모든 시티넷 회원을 대상으로 2014년 참여 도시를 공개 모집하였다.

7 재난·재해, 기후환경 변화, 경기변화, 생계 등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기에 대해 미연에 준비가 되어 있어 정부와 시민들이 잘 대응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대응력 향상 과제의 주요 골자이다.

CITYNET members and partners acknowledged the interconnectivity of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CITYNET member PIEDAR (Pakistan Institute for Environment Development Action Research) shared their progress on gender-aware solid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a following presentation, CITYNET member MaRGG (Management Resources for Good Governance) outlined the challenges facing the urban poor and how housing resources can create upward mobility. These presentations and many more were followed by expert panels of diverse urban development professionals and innovators. In addition to domestic partners, numerous international and corporate partners such as Microsoft, UNDP, UNESCAP, and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l took part.

At the Mayor's Forum, chaired by Mayor Park Won Soon of Seoul, mayors and deputy mayors presented a best practice, challenge or project in their city. The Mayor of Seberang Perai, Ms. Maimunah Mohd Sharif, presented solid waste management challenges and integrated solutions to foster cleaner, greener and healthier cities. Mayors and Deputy Mayors from over 20 cit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which identified opportunities for future knowledge sharing,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at the top levels of government.

In the midst of a full schedule, one of the most valuable sessions of the Congress was the Donor and Partner Matching Session. During this dedicated networking event, partners distributed literature and met with member representatives face-to-face to discuss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Members crowded around partner representatives and jumped at the chance to discuss their challenges with representatives from WBCSD, Microsoft, UN Agencies, the Seoul Institute and more.

Solidify New Partnerships

The Congress also served as a platform to solidify new partnerships with a range of organizations. CITYNET was proud to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림12 서울연구원의 고준호 연구위원이 서울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년 시티넷 서울 총회와 서울의 기회

서울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는 300여 명의 참여자에게 서울시가 추진한 인간 중심의 혁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3년 시티넷 서울총회는 서울특별시(SMG)의 개발과 우수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의 정부 인사들도 회원도시 대표들을 만나고자 자리를 함께했다. 장덕모 서울시도시철도국장은 인프라 클러스터 회의에서 발표자로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철도-버스 통합요금체계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 성공 사례들을 설명했다. 교통은 시티넷 회원들이 항상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참석자들은 서울시(SMG)와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총회 둘째날인 11월 5일(화)에 진행된 서울연구원 회의(Seoul Institute Parallel Session)에서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참석자들의 다수가 실무전문가로 이들은 공기질, 고체폐기물, 버스시스템 혁신, 서울의 도시계획 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발표를 열성적으로 들었다. 또한 참가자의 수준높은 질의응답과 자신의 도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였다. 오치르바트 소로그조 울란바토르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focusing on expanding futur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KOICA is a major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source for the Asia Pacific, and the Secretariat looks forward to matching underdeveloped member cities with KOICA programs.

CITYNET and Microsoft CityNex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cusing on delivering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to urban problems across the network. As the first initiative from this agreement, the Secretariat and Microsoft CityNext launched the CityApp Kathmandu 2014 program. This innovative event brings together developers,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s to collaborate on technology applications to solve urban challenges.

On Wednesday November 6th, Rockefeller Foundation representative Michael Berkowitz presented the Rockefeller 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 to a crowded audience. This program will prioritize the multi-faceted issue of urban resilience by supporting a Chief Resilience Officer to create and implement resilience planning at the highest level of government for selected cities. Mr. Berkowitz issued an open invitation to all CITYNET member cities to apply for the 2014 cohort.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and Future Opportunities for Seoul

Seoul is often seen as a model of successful and rapid urban development. The Congress allowed nearly 300 Congress participants to personally experience the people-centered innovations of Seoul. The 2013 CITYNET Seoul Congress was first and foremost a way to showca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MG) best practices and development.

Many SMG officials took part, meeting and network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member cities. During the Infrastructure Cluster Session, Mr. Deuk-mo Chang, the Director of Urban Railway Equip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ented his division's best practices, highlighting the TOPIS system and bus and train integration. CITYNET members, always interested in transportation developments, expressed a wish to learn more about transportation, in future training programs


부시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을 얘기하며 서울연구원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고 관심을 표명하였다.

시티넷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시티넷 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도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시티넷 사무국은 서울과 회원 도시 간에 논의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시킬 수 있으며 서울시는 그동안의 값진 경험과 혁신 및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시티넷이 아시아 전역에 인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티넷의 미래 프로젝트와 계획

시티넷 네트워크는 총회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구성 중에 있다. 총회 때 제기된 제안과 새로운 참여자 간의 관계, 공유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에 대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제 시티넷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아젠다(안전, 지속가능성, 도시대응력, 인간 친화성 등)를 이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시티넷은 앞으로도 회원도시와 관련 파트너 간에 정보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레터, 출판물, 시티보이스(CityVoice) 잡지, 시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티넷이 보유한 폭넓은 도시 정부 네트워크는 배포되는 정보들이 도시개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줄 것이다. 서울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시티넷 네트워크는 서울의 우수 사례와 경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며 언제든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과 교류할 의사가 있다. 시티넷은 서울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인간 친화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공유하고자 한다. 

hosted by SMG or KOTI.

A packed room greeted presenters at the Seoul Institute Parallel Session on Tuesday, November 5th. Expert practitioners listened eagerly to presentations on air quality, solid waste, bus system innovations and Seoul's overall urban planning. The audience asked challenging questions and offered insight from their own cities. The Vice Mayor of Ulaanbaator, Mr. Ochirbat Sorogjoo, discussed the challenges that rapid urbanization has created for air quality in his own city, and expressed a wish to take the lessons of Seoul Institute home.

CITYNET welcomes Seoul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to connect with Asian cities through the Secretariat in Seoul. The Secretariat team can facilitate discussion and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Seoul and member cities. With Seoul's experience, innovation and resources, CITYNET can work to foster people-friendly, sustainable, and liveable cities across the Asia Pacific.

CITYNET's Future Projects and Plans

The CITYNET network is already building off of the momentum created by the Congress, generating proposals, solidifying connections, and contributing ideas for projects and programs. The Congress was a launchpad for renewed growth throughout the network. By incorporating the ideas, contacts and energy that was created in November, CITYNET is moving forward with a new urban agenda.

CITYNET continues to be a hub of information for members and partners alike. Newsletters, publications, CityVoices magazine and the CITYNET website share information on programs and projects from across the network. With a wide distribution network among government officials across the Asia Pacific, CITYNET publications are an influential voice among the urban development field. Contributions from Seoul, as host city of the Secretariat, are especially welcome.

CITYNET invit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Institute to connect with the Secretariat at any time. Our network is eager to benefit from Seoul's best practices, experience, and innovative solutions. Working together, we can refocus urban development goals on sustainability and people-centered policies. 